

학원선교교육주일

자 료 집



학원선교 교육주일을 지킴시다!

2013년 3월 10일(주일)

2013년 3월 둘째 주일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학원선교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기 독 교
대한감리회

교육국·학원선교회·교목회

목 차

- * 감독회장 목회서신임시감독회장 김 기 택
2013 학원선교교육주일 목회서신

- * 설 교교육국위원장·중부연회감독 고 신 일
격려하라

- * 학원선교회장 메시지학원선교회 회장 김 중 훈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이하여

- * 인사말.....교육국 총무직무대리 정 현 범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성수하자

- * 자 료
학원선교교육주일 예배문교육국
교목활동1, 광성중학교허 광 열 목사
교목활동2, 팔봉중학교박 정 수 목사
우리교회의 학원사역1, 영등포중앙교회김 선 국 목사
우리교회의 학원사역2, 꿈이있는 교회하 정 완 목사
계통학교와 자매교회와의 동역활동 : 경화여중과 대림교회 이야기우 중 익 목사
종자연에 대하여김 중 화 목사

- 감리교계통학교-교회 자매결연현황
- 감리교계통대학교 현황
- 관련기관 임원 현황
- 기독교학교 교육현장

2013년 학원선교교육주일 목회서신

임시감독회장 김 기 택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학원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3월10일은 학원선교교육주일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선교초기부터 교육사업을 통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사 아펜젤러는 의술을 배우려고 스크랜튼에게 찾아온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을 하면서 1886년 6월 서울에 “배재학당”을 정식으로 시작하였고 스크랜튼 대부인은 1885년 10월 정동에 선교부지를 마련하고 여학당과 사택을 마련하여 “한국의 부녀자들이 보다 좋은 한인이 되며, 한국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훌륭한 한국”이 되게 하자는 목적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하였고 왕비께서 “이화학당”이란 이름을 지어 보내 주었으며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배화학당 및 평양 광성학교, 정의여학교, 영명학교, 인천 송도학원 등을 건립하여 교육사업에 진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현장은 기독교학교 설립이념과 학교정책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예배와 종교교육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학교 설립이념과 교육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기독교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교차하고 정보화시대의 특성이 교육현장에 영향을 끼치며 세속주의 물결에 신앙적인 질문이 의미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육의 위기는 나라의 위기입니다. 학원선교는 단지 한 개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의 인격과 교양, 신앙을 갖도록 하는 전인적 인간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신앙과 인격과 교육으로 세워 갈 때 건강한 교회와 나라가 세워 지는 것입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아 모든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학원선교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장과 교목,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격려하라 (살전5:12-14)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위원장 고 신 일 감독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6천여 감리교회와 160여만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탈붕괴’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멘탈(mental)은 ‘정신적인, 마음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멘탈이 붕괴됐다는 말은 ‘정신이 무너졌다, 뉘이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멘탈’이 정말 ‘붕괴’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이 말을 처음으로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일어난 ‘묻지마 범죄’만 봐도 그렇습니다.

원한관계나 복수심 때문에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 많은 이들을 당혹케 했습니다.

또한, ‘멘탈붕괴’와 더불어 요즘에 ‘치유’라는 뜻의 ‘힐링(healing)’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방송국마다 힐링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으며, 서점에는 힐링 관련 서적들이 날개 달린 듯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힐링’을 테마로 한 여행 상품들이 인기가 많고, 힐링 푸드, 힐링 뮤직, 힐링 연극, 힐링 카페 등 힐링 관련 상표 출원이 부쩍 늘었을 정도로 전국은 이미 힐링 열풍입니다.

현대인들이 힐링(치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 찌들고 상처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조사(2011년)>를 보면, 18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519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행복지수 26위, 자살률 1위라는 성적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운 학생,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피로에 지친 직장인, 실직의 공포에 불안한 사람들 은퇴를 눈앞에 둔 사람 ... 등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는 이런저런 이유로 ‘멘탈이 붕괴’되어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르쳐야 할 자녀들이 유난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성적 때문에... 입시 때문에... 학교폭력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탈옥수 신창원의 변호사 엄상익이라는 분이 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창원은 강도 살인을 범한 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1997년 탈옥했다가 1999년 검거된 인물입니다. 그 책에는 각종 신기록을 수립하며 1997년 부산교도소 탈옥 후 907일 만에 검거된 신창원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 하러 학교와, 빨리 꺼져라’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

마가 생겼다.”

이 말이 그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때 만약 선생님이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했다면 신창원이 어떻게 됐을까 ...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는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격려의 핵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 힘내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 이것이 격려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아파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를 받으면 어떤 일이든 더 잘해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신바람이 나게 하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기러기들은 제멋대로 날아가지 않고, 줄을 지어서 ‘V’자 모양을 하고 날아갑니다. 먼저, 한마리가 앞에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그 기러기는 뒤로 가고, 그 다음 기러기가 앞으로 와서 끌고 갑니다.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면,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혼자서 날아갈 때보다 71%의 거리를 더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 조용히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뒤 따라 가는 기러기들이 얼마나 “끼럭 끼럭”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에는 그냥 “끼럭끼럭”우는 소리로 들리지만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그게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앞에서 힘들게 이끌어 가는 기러기를 격려하는 외침입니다. “힘내!”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을 더 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러기도 이렇게 격려하며 산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 세우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 데려가려 하노라”(출 3:8)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속적으로 격려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출 3:11)’ 하는 말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12)’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하면 무엇이랴 말해야 합니까(출 3:13)’는 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출 3:14),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이다(출 3:15)’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출 4:1)’는 말에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였고, 모세의 손에 나병(한센병)이 들게 하셨다가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두려워했습니다. ‘오 주여 ... 나는 입이 뿔뿔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출 4:10)’

‘오 주여 보낼 만 한 자를 보내소서(출 4:13)’고 합니다. 그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4장 12절)’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4장 14절)’고 계속 격려하시며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백성들을 느보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큰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수 1:9)하셨습니다. 이 짧은 아홉 절 속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는 크고 힘센 사람들 그리고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

했겠습니까? 그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꼭 필요한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데살로니가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려가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는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고, ‘다스리며’는 교인들을 치리(治理)한다는 뜻이고(딤후 3:4, 5, 12), ‘권하는’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훈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살전 5:14)하였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원래 군사 용어로서 낙오한 병사에 대해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즉,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내로 해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출 34:6;시 103:8).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참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우리를 ‘격려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 특별히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학생들에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학생은 교사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깎아 내리는 말... 하지 마세요. 세워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며 격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한 마디 말이 평생 기억에 남는 격려의 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평생 가슴에 박힌 상처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둘째 주일은 학원선교교육주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감리교계통학교와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감리교회는 학원선교에 매진함으로써 훌륭한 학교를 많이 세웠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한국감리교회의 학원선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으며 복음 전파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감리교인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와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인물’을 길러내야 합니다.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학원선교교육에 열정을 쏟으며 헌신하는 교목들과 학원선교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사들에게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학원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좋은 교사와 격려자가 되는 것도 학원선교를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격려자가 되어 미래의 지도자와 인물들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이하며

학원선교회 회장 김 중 훈 감독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리교회 성도들과 감리교계통학교의 교목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년 3월 둘째 주일은 전국 감리교회가 감리교계통학교와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학원선교교육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학원선교교육은 맥클레이 선교사가 1884년 7월 3일 교육과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고종황제로부터 윤허를 받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8월 3일 정동에서 고영필, 이점나 두 학생을 데리고 교육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마태복음 20장 :26-27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배재학당을 세우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선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효시로 하여 스크랜튼이 1886년 5월 31일에 이화학당을, 남감리회 캠벨 여사는 1898년 10월 2일에 배화학당을 세웠었습니다. 또 배재학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선교사들은 1887년 10월 8일에 지금의 정동 제일교회의 전신인 벨엘교회를 세웠고, 배화학당에서 시작된 예배는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학원선교교육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영화(1892), 광성(1894), 정진(1896), 정의(1899), 루시(1903), 호수돈(1904), 송도(1904), 미리흙(1906), 송덕(1906) 등의 학교가 설립되고 기독교 정신 속에서 육영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학원교육은 선교활동의 발판이 되어 우리나라의 현대식 신교육의 기초를 이루었고, 아울러 민족과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어 훗날 민족계몽과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으며 복음 전파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원선교교육과 학원현장은 심각한 위기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안티 기독교의 SNS 등을 통한 활동과 내부적으로는 기복적 신앙과 개교회주의, 성장위주로 인한 맘몬 우상 숭배, 교회와 사회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등으로 인한 기독교의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복음전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학원선교교육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현장이 어둡고 사회에서의 복음전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이하여 감리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학원선교교육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으로 훈련된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은 감리교회와 감리교계통 학교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배려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가는 사명을 학원선교교육을 통해 감당해야 합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지키는 감리교회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을 위한 영혼 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학원선교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교육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한 마음으로 학원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성수하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총무직무대리
정 현 범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감리교회와 감리교계통학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2013년 3월 둘째 주일(3.10)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학원선교교육주일로 정하고 학원선교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감리교회의 학원선교교육은 선교 초기부터 기독교학교를 세우고 학원선교와 인재 양성에 앞장서서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 정신 속에서 육영사업이 진행되게 하였고 기독교학교의 설립을 통하여 선교활동의 발판이 되어 우리나라의 현대식 신교육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민족과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어 훗날 민족계몽과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으며 복음 전파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원선교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종자연 문제,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본격적인 시행 등으로 학원현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번 학원선교교육주일을 기하여 기독교학교의 설립 취지에 따라 성경교육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바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013년 교육국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감리교교육”이라는 표어를 통해 감리교교육을 세워갑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성수함으로 개체교회의 학생선교와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개체교회가 지역사회에 학원선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확장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감리교교육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감리교회가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위한 기도와 관심으로 감리교회의 학원선교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며 기독교학교의 건학정신에 따라 학원현장에서 기독교교육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학원선교교육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목과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 예배

* 인근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예배로의 부름다 함께
시편 묵상사 회 자
경배 찬송8장다 함께
교독문83번(빌립보서 4장)다 함께
신앙 고백사도신경다 함께
함께 드리는 기도다 함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을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비행과 탈선을 일삼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젊은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세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온 교우가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어 젊은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청소년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 영3장다 함께
대표 기도학생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데살로니가전서 5:12~14학생중에서
특별 찬양성 가 대

성가대 또는 인근 학교의 찬양단의 찬양

말씀의 증언..... 격려하라설 교 자
(담임목사 또는 인근 학교 교목)

목회 기도설 교 자
봉헌 찬송.....574장다 함께
봉헌 기도교사중에서
성도의 교제.....초청된 인근학교 교장, 교목, 교사, 학생 소개,담임목사
장학금 수여

내가 교목이 될 줄은...

광성중학교 교목 허 광 열 목사

중학교 1학년부터 저의 한결같은 한 가지 소원은 부흥사이었다.

15년 전에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감리교 목사 가운데 중등윤리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목을 추천하라는 내용이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추천할 사람이 없었다. 저는 당시 의욕적으로 서울에서 개척 교회 3년 차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당신도 교사 자격증이 있다면서 교목에 지원해보는 것이다. 교목은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는 직종이다. 윤리교사 자격증은 교목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공부가 좋아서 따 놓은 것이다.

개척교회 시절이라 교목을 하면서 교회를 꾸려나가면 괜찮을 듯 싶기도 했다. 때마침 광성중학교에서 교목 공고가 나고, 저는 지원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공개채용이라 서류전형, 면접, 시강이라는 절차를 거쳐 교목이 되었다. 감리교 학교인지도 몰랐던 광성중학교가 내 직장이 되었다. 학교 취업으로 개척교회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얼떨결에 이중직 금지 항목으로 인해 교회를 사임하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교목이 되었다. 벌써 교목 생활도 14년이 흘렀다.

들어가서 보니 들어보지도 못한 감리교 학교요 다시 들리는 소문이 미션스쿨로서는 최악의 학교란다. 교목이 처음인 필자로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러던 중 정신차려보니 그게 무슨 말인지를 온 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교목 모임이 있어서 다른 감리교 학교를 다녀보니 더욱더 비교가 되었다. 학교에 교목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조차 신기할 정도이다.

미션 스쿨로서 최악이기에 장점도 있었다. 학교에서 교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별로 할 일이 없었다. 다른 교목들은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소명 없이 갑작스럽게 뒤늦게 시작한 교목, 뭔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부름이 궁금했다. 우선 기도부터 했다. 하지만 기도 장소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학교 예배와 성경 가르치는 것이 나의 주 업무건만 예배를 제대로 드릴 강당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당시 전교생이 예배드리던 곳은 실내 농구장이었다. 학생들을 마루 바닥에 앉혀놓고 드러지는 예배, 지금 생각하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런 예배를 반세기 이상 드러왔단다. 선교를 한답시고 시작했는데 예배의 '예' 자도 모르는 학생들을 마루 바닥에 앉혀놓고 교목이 북 치고 장구 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학교는 기적적으로 몇 년 전에 예배당이 생겼지만 아직도 예배당 없이, 마땅한 예배 장소 없이 고군분투하는 교목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광성중학교는 전교생이 쾌적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적지않은 학교들이 작은 강당에서 몇 학급만 예배하고 나머지 학급들은 교실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믿는 않는 학생들을 놓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교실에서 스피커나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도 슬프게 하는 일이다. 학원 선교는 교목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학원 선교는 학교 법인만의 책임도 아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야하는 일이다.

광성중학교는 감리교 학교지만 기독교사의 비율은 3분의 1 정도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학생들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는데 교목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없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 찾아오게 만들어야 했다.

기도 중에 뭔가 할 일을 찾았다.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 마다 상담실에서 학생들에게 명품 초코렛을 나눠주기로 했다. 개미 새끼 하나 없는 곳에 월요일이면 초코렛 때문에 방문자가 엄청났다. 첫 날은 문짝이 부서질 뻔 했다. 질서를 위해 10명 정도 입장시킨 후에 짧은 기도 후에 초코렛을 주었다. 예상했던 대로 월요일만 학생들이 찾아왔다. 또한 기도 중에 갑빠 동아리를 시작했다.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임이다. 몸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사춘기 남학생을 위한 배려이다. 매일 모여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초코렛을 나눠줬다. 그리고 기도 중에 동아리 학생 중에 눈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데리고 영어성경 읽기를 하기 시작했다.

4번째 단계로는 영어성경 읽기 동아리 학생들의 어머니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교 어머니회를 시작한 것이었다. 드디어 9년 전에 매주 월요일 10시 30분에 모이는 선교 어머니회가 발족되었다. 모임의 목적은 전교생 주일 성수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월요일 10시 30분이면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다. 역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 주셨다. 아니 기도하지 않은 것 까지도 응답하셨다.

5년 전부터는 졸업 후 선교어머니회를 조직하여 월 1회 기도회를 학교 밖 외부에서 시작했고 현재는 학원선교회를 준비 중에 있다. 선교 어머니회 10년 차에 학원 선교회를 가동하려한다. 할 일이 많기에 지금부터 가슴 벅차오른다.

교목 초기에는 다른 학교의 모든 것이 부러웠다. 그 때는 주로 이화여고에서 교목 모임을 했다. 전교생이 모일 수 있는 강당, 작은 예배당, 카페까지 따로 있는 이화여고로 교목 모임을 다니면서 소원 한 가지가 더 늘었다. 우리 학교에서도 교목회를 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교목 모임을 갖게 되었다.

저는 광성중학교 교목이지만 선교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 선교회를 가동하여 하고 싶은 일들이 아주 많다. 그중에 하나는 선교문화공연 지원이다. 안 믿는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공연인데 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다. 단돈 30만원, 50만원이 없어서 공연을 유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학원선교회의 지원으로 여러 학교에서 선교공연이 열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영혼이라도 결단하는 어린양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선교어머니회의 지원으로 문화선교공연의 첫발을 디뎠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와 자매 교회인 성광교회 방원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리교 미션학교들은 자매교회와 결연되어 있는데 학교의 재단이 경제적으로 약할 때에는 더욱더 자매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희 학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교목을 하다보면 급식 못하는 학생들, 수학생업을 갈 수 없는 학생들, 등록금이 없어 고민하는 학생들을 수시로 만나게 된다. 그럴 때마다 학교 옆에 위치한 성광교회로 뛰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선교공연도 성광교회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요즘 미션스쿨에는 선교에 많은 제한이 따르지만 그래도 선교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임에 틀림없다. 해마다 신입생들이 들어온다. 약 3분의 2이상은 종교가 없다. 교회에서 청소년 구경하기 힘든 요즘, 전도하려고 해도 대상자 만나기 힘든 요즘이지만 교목은 종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청소년을 만난다. 선교는 교목이나 미션 학교만의 몫은 아니다. 한 어린 영혼을 위하여 모두 함께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밝다.

나의 꿈은 중 1때부터 부흥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학원선교교육주일에 전해드리는 '작아서 아름다운 팔봉중학교' 선교이야기

팔봉중학교 교목 박 정 수 목사

들어가는 말

충남 서산에서 태안방향으로 약 8Km 가다보면 팔봉산으로 들어서는 분기점 왼편 언덕위에 1966년 설립된 '작아서 아름다운 팔봉중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교육선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정계훈 이사장(장로/어송교회)이 학생 4명, 교원 7명으로 <웨슬레 중등구락부>를 시작했고, 현재 서태안 지역 유일의 기독교 사학이 되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경천애인(敬天愛人)'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든다'는 '낙토건설(樂土建設)'을 창학 이념으로, 활발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학교다.

개교 이래 지금까지 '기독교의 건학이념'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학교 복음사역 현장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영성교육은 인성교육의 출발점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많이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창의인성교육'이다. 창의인성교육이란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며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이다. 이처럼 훌륭한 교육철학을 찾아서 학교교육제도를 바꾸고 현장에 적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나, 한계가 있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철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독교 영성교육'이 보다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학교는 매주 수요일 1교시에 전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석하는 학교 예배를 실시한다. 개교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학교 예배는 찬양부 학생 20여명의 찬양과 기도로 시작되며, 매주 외부 목회자들을 초청해 말씀을 듣는 영성교육이다. 한 해 약 25명 이상의 목회자들과 찬양사역자들을 초청해 성경말씀과 그들의 신앙이야기를 전해 듣는 살아있는 영성교육의 시간인 것이다.

지난 해 순회교사로 근무한 김 모 교사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매주 수요일 학교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팔봉중학교의 힘과 창학 이념은 학교 예배를 통한 신앙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예배는 기독교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이며 미래 기독교 인재양성을 위한 가장 필요한 영성교육인 것이다.

둘째, 전교생 가정방문과 39년 무감독교사

가정방문은 우리학교 개교 이래로 매년 학기 초 일주일간 전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는 중요한 행사다. 한때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해서 교육부로부터 가정방문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있었지만, 가정방문이야말로 학교와 가정 간 소통의 통로이며, 소통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고 학생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학교경영의 소신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 없이 지켜오는 전통이 되었다.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교사들이 학생 가정방문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곳곳이 학생을 찾아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보살피 주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헌신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들을 보살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또한 무감독교사는 39년 동안 학생들의 바른 양심교육을 위해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국 중학교단위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매년 신입생들에게 무감독교사 훈화 교육을 한 학기동안 실시해 자랑스러운 무감독교사 역사와 지켜야 할 일들, 무감독교사의 장점 등을 소개해주며 학생들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 정계훈 장로는 ‘교사와 학생간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며, 믿음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진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항상 강조한다. 무감독교사 실시로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 믿는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감독교사야말로 인성교육을 뛰어넘는 기독교 영성교육의 실천 모델인 것이다.

셋째, 글로벌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학생 초청 홈스테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대한민국 학교 교육현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 속에는 부유층 자녀들만을 위한 귀족 교육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팔봉중학교는 전형적인 농어촌학교이며, 4-5년 전만 해도 전교 학생수가 70여 명인 소규모 학교로 폐교를 걱정해야 할 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때 과감히 시작했던 것이 특성화된 영어학교로의 새 출발이었다. 작은 학교지만 영어권 원어민 3명을 초청해 영어특성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서울 영광교회와 영국 현지 선교사의 협력으로 미국, 영국 기독교학생들을 초청해 3년 연속 홈스테이, 영어예배, 영어집중캠프, 문화체험 등을 실시해오면서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서산 시내의 학생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2013년에는 160명이 넘는 6학급 규모의 학교로 탈바꿈 했고,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외국의 기독교학생들을 선발 초청해 그들과 홈스테이 및 캠프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믿게 하는 것이 출발점이지만, 글로벌 인재양성을 단지 외국학생들을 초청해서 영어를 배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글로벌 기독교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교육목표가 되어야 한다.

넷째, 행복을 가르치는 학교

요즘 교육계에는 학교교육에도 행복을 가르쳐야 한다는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미래의 행복을 목표로 하면서도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은 관심 밖의 영역이었다. 행복은 언제나 범교과 교육과

정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며 그에 준하는 행복을 이루지 못했다.

본교의 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요소를 찾아 그 행복을 실천하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이다. 한 학급 학생 수 25명 이하, 전체 6학급 150여명 정도로 '작아서 아름다운 학교'를 지향한다. 따라서 교육이 안고 있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히 혁신하여 학생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하고 가정과 사회에서조차 상처받은 영혼들도 위로 받을 수 있는 행복 학교로 나아가고 있다.

또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학교, 잘 하는 학생과 못 하는 학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분야와 못하는 분야로 나누어진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재능을 부여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육하는 학교,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아름다운 꿈과 추억'을 마음껏 만들며 그리움이 차곡차곡 쌓여 행복이 누적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오는 말

팔봉중학교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이런 학교복음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해주시는 교회들에게 학원선교교육주일을 통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학교복음화 사역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교회 인근의 공립중고등학교 선교 이야기

영등포중앙교회 교육목사 김 선 국 목사

지난 7년간 영등포중앙교회가 교회 인근의 공립중고등학교와 관계를 맺고, 학교 안에 점심 예배와 다양한 선교모임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교회 인근의 공립중고등학교 선교를 시작하기까지

1) 학교 앞 전도를 통한 청소년 사역의 변화

필자는 2005년 1월부터 영등포중앙교회 청소년부를 맡아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영등포중앙교회 청소년부는 몇 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다.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도 교인 자녀들을 중심으로 15명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어떤 사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2005년 한 해 동안 교회 인근의 D중학교 앞으로 매주 전도를 나가게 하셨다. 전도의 열매로 많은 학생들이 교회로 인도되었고, 교회는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였다. 1년 여의 시간이 흘러 2006년에는 청소년부 예배와 공동체의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예배출석인원도 50여 명이나 되었다.

2) 학교 앞 전도의 한계

2006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주 1-2회씩 학교 앞에 나아가 학생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였는데, 학교 앞 전도를 하면서 어떤 한계와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도전이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그 즈음에 청소년 사역자 전문 세미나에 참석을 하여 강의를 듣고 또 몇 권의 책을 읽던 중이었는데, 문득 학교 앞을 넘어 학교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만들고 교사들과 학생들을 만나며 건강한 학원선교를 하고 싶다는 도전이 생겨난 것이다.

3) 부딪쳐보는 용기

도전을 결심하고 오랜 시간 용기가 없어 실행을 못하다가 2006년 11월 17일,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무작정 D중학교의 크리스천 선생님 한 분을 찾아 교무실로 갔다. 교무실에서 선생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교회를 소개하고, 점심시간에 예배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도 표현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신우회 활동이 있음을 소개해 주셨고, 신우회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지는 않았다. 인사를 드

리고 나오는 길에, 혹시 D중학교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회 교육관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렸다. 마침 그 시점에 영등포중앙교회 교육관이 증축되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을 만나고 나오는 걸음이 그리 기쁘지는 않았지만, 그 만남이 있을 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4) 작은 기회, 작은 섬김

예상 외로 선생님을 만나고 열흘도 지나지 않은 11월 24일에 연락이 왔다. D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음악회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하시면서, 혹시 영등포중앙교회 교육관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고, 결국 12월 22일 D중학교 졸업음악회를 영등포중앙교회 교육관에서 하게 되었다. 함께 사역하던 신학생과 함께 최선을 다해 졸업음악회의 준비, 진행, 마무리를 도왔다.

5) 첫 점심예배의 시작

졸업음악회를 계기로 2007년 3월 22일(목) D중학교 신우회 선생님들의 모임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다. 네 분이 모여 계시는 신우회 모임에서 필자는 다시 한 번 학교선교를 향한 마음과 점심예배인도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다. 그 날 모임에서 선생님들께서는 필자가 D중학교 화요점심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두 분의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도 해 주셨다. 2007년 3월 27일(화요일) 처음으로 시작된 D중학교 점심예배는 지난 6년간 매주 목요일 12:45-13:10에 50-80여명의 중학생들과 기독교사들이 모이는 안정적인 예배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 예배는 2013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

2. 학교 선교의 확장

1) K고등학교 점심예배 인도

쉽지 않아 보였던 D중학교 안에서의 예배를 시작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학교선교를 확장해 주셨다. 영등포중앙교회 전도사가 D중학교에서 매주 예배를 인도한다는 이야기를 한 학생에게 들으신 K고등학교 신우회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3주에 한 번씩 K고등학교에도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함께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현재까지도 매주 수요일 K고등학교 예배를 맡아서 인도한다.

2) S고등학교 점심예배 인도

생각보다 빨리 두 학교의 점심예배를 맡아 주중에 인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학교 선교의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교회 인근의 신설학교였던 S고등학교 안에서의 선교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S고등학교에 다니는 교회 학생을 통해 신실한 기독교사 한 분의 이메일을 받았고, 그 선생님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S고등학교 안에서 어떻게 학교선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의 협조로 2008년부터 S고등학교 안에서도 점심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S고등학교는 D중학교나 K고등학교처럼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지는 않았다. 또한 학교 안에서의 종교활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다. 따라서 이전의 두 학교에 비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헌신된 기독교사의 결단과 도움으로 S고등학교 점심예배도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12:10-12:40분에 드려지고 있다.

3. 점심예배와 함께 시도 된 다양한 선교들

3개 학교에서의 점심예배와 함께 지난 6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공립중고등학교 안에서의 선교를 시도해 왔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공립중고등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영등포중앙교회의 중심선교는 점심예배이지만, 그 예배와 함께 학교선교에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사역들을 기독교사들과 협의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 1) D중학교에서는 기독교사 한 분과 함께 <사랑나눔반>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클럽활동(CA)을 결성하여 2년 동안(2010-2011)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4시간 모임을 가졌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주일학교 전도사들이 조별로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 2) D중학교 <기타반> 클럽활동(CA)을 전도사님들이 맡아 2년간(2010-2011) 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었다. 기타반 클럽활동도 교회에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교회를 친근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작년(2012)에는 D중학교 신우회 소속의 선생님 한 분과 함께 청소년부 전도사가 <영화감상반> 클럽활동(CA)을 맡았다. 한 달에 한 번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설교를 할 수 있는 모임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교회 사역자와 학생들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4) S고등학교에서는 기독교사 한 분의 도움으로 <밀알반>이라는 클럽활동(CA)을 결성하였다. 수년 간 학생들과 교제하면서 영화를 보여주고 느낀점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사역자가 설교를 하기도 했다.
- 5) D중학교, S고등학교, K고등학교 신우회 선생님들과 예배를 돕는 선생님들에게 매학기가 끝날 때마다 교회예산으로 신앙서적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고 있다. D중학교에서 함께 예배를 돕는 기독교사의 요청으로 <좋은 교사>라고 하는 기독교사들의 모임을 평일에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4. 학교 사역을 통해 나타난 열매들

1) 학교 사역을 바라보는 교회 내의 인식 변화

학교사역 초기, 인근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일로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자 졸업음악회나 합창대회를 위해 학생들이 교회를 단체로 방문하면서 교회가 지저분해 지기도 했다. 그러자 이를 우려하시는 교회의 어른들도 계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교회 안의 청소년 사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어른들의 우려는 사라졌다. 오히려 담임목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속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사역의 중요성을 많은 성도님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지금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청소년 사역자들을 격려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들(3개 학교의 점심예배 간식지원)로 학교선교에 함께 동참을 하고 계신다.

2) 청소년부와 청년부 사역의 활성화

인근의 학교선교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사역이 활성화되는 열매가 나타났다. 사역자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영등포중앙교회를 직접적으로 소개하거나 전도하는 일은 없지만, 교회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불신자 친구들이 매년 평균 30-40명씩 된다. 이렇게 교회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사랑으로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서, 교회 청소년부에 매년 80-100명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이 예배출석인원의 70퍼센트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거나 새롭게 전도되어진 학생들이고, 매해 20여 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는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학원선교를 통한 청소년부의 활성화는 청년사역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청년부는 매주일 120-130명의 청년들이 예배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3) 점심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변화

학교에서의 점심예배와 다양한 선교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했다. D중학교와 S고등학교의 점심예배에 참여했던 학교 내 문제아들이 전도사들과 연결이 되어 교회에 나와 영적으로 변화되는 일들도 많다. 이러한 일들은 선생님들에게도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3년 전 S고등학교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한 학생은 감신대에 입학하여 현재 영등포중앙교회에서 청소년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신학생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5년 전 D중학교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학생들 중 몇 명은 현재 대학교에 진학하여 청년부에 출석하면서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학생들이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좋은 일꾼으로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4) 지역교회와 인근학교의 협력

D중학교는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선교한 결과, 교회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가 필요로 할 때마다 장소와 장비를 교회가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학생들은 비록 행사참여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경험한다. 2011년에는 학교에서도 교회행사를 위해 1년에 두 차례 학교운동장을 무료로 대여해주기도 했다. 학교와 교회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되자 D중학교의 선생님들도 영등포중앙교회의 청소년부 사역자들의 사역을 신뢰해 주신다. 특히 문제아들이 교회의 청소년부 사역자와 교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학교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는 한다는 분위기가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 형성이 되기도 했다. 일례로 생활지도부를 담당하는 신우회 소속 선생님께서 학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생활지도부에 오는 학생들 몇 명을 부모님들과의 상의 하에 교회 사역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기도 했다.

5. 교회 인근 공립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선교를 계획하는 교회들을 위한 조언

1) 청소년 전문 사역자 양성 및 지원

공립중고등학교 안에 선교모임을 개척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정있고 성실한 청소년 사역자가 필요하다. 한 두 번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자가 가능한 장기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영등포중앙교회는 현재 4명의 사역자들이 학원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교회가 인근학교 선교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청소년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 학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교회의 필요에 의한 사역이 아닌 학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고 장기적으로 유익하다. 교회가 인근학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학교관계자들에게 물어보자. 장학금 지원, 결식학생지원, 교회시설대여 등은 학교와 관계하는 좋은 방법이다. 요즘에는 방과 후 특별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강사들을 교회 성도님 가운데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좋은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다만 교회를 너무 드러내려 하거나 생색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등포중앙교회는 매해 세 차례 정도 교회시설을 D중학교에 빌려주는데, 3-4명의 사역자들이 행사준비와 진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교회를 방문하신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맺어진 인근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나중에 학교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매우 유익하게 작용하게 된다. 교회가 가능한 역량 안에서 학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며 나아가다 보면 선교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됨을 경험할 것이다.

3) 학교 내 신우회, 기독교사와 관계 맺기 그리고 협력

학교 안에서의 사역(점심예배, 클럽활동 등)은 교회가 결단하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학교 안의 신우회나 교사들의 협력과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요즘은 특히 공립학교 안에서의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 기독교관련 모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너무 서두르거나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먼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혹은 이루어졌던) 기독교관련 모임들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그 안으로 녹아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교회와 사역자의 진심과 성실함이 신우회 혹은 기독교사에게 잘 전달될 때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된다. 그 기회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사역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

4) 학교 앞에서 학생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중요성

선교하고자 하는 교회 인근의 한 학교를 정했다면, 기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학교 앞으로 학생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공립학교 안에서의 예배나 모임은 결국 관계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알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영등포중앙교회 청소년부 사역자들은 매주 학교 앞으로 전도를 나가고, 남학생들과는 축구나 농구를 하면서 친분을 쌓아간다. 시험기간에는 매일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맞춰 학생들에게 파이팅을 외치며 비타민을 나눠준다.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학생들에게는 점심예배로 초청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초청에 응한다.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만나되, 학교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행동들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학교 주변에 버려진 수많은 전도지들과 교회가 나눠준 간식 포장지들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인근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함으로 주의해야 하고, 학교 앞 전도가 끝난 뒤에는 학교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

5) 변수를 염두에 두는 사역

선교의 대상이 미션스쿨이 아닌 공립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필자도 지금까지 다양한 변수들을 경험해왔다. 사역의 위기에 직면할 때도 많았고, 사역 초기에는 당황도 많이 했다. 예를 들어, 교장(교감, 교무부장)선생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종교활동을 매우 엄격하게 금하시는 분이러거나,

예배를 도와주시던 헌신된 기독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게 되었는데 대체할 만한 다른 기독교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때도 있었다. 학교의 일정으로 인해 예배나 모임이 취소될 때도 있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 될 때마다 학생들이 잘 모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클럽활동(CA)같은 경우는 매년 새롭게 편성이 되고, 담당 선생님 한 분이 꼭 계셔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솔직히 지금도 이런 변수들과 어려움을 매순간 경험하고 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점심예배를 그만 두게 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한다. 하지만 변수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 기쁨이 매우 크다.

6)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사역

반드시 학교 안에서 점심예배를 드려야만 학교선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풍족히 있어야만 학교선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이 교회 인근의 학교를 마음에 품고,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학교선교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학교선교를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는 담임목사님과의 의논 속에서 차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사역자의 의욕이 앞서서 교회와 담임목사님과의 조율 없이 사역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결론 : 한국 감리교회들의 청소년부 부흥을 소망하면서

요즘 들어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 사역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실제로 청소년 집회나 교사교육을 위해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청소년 사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청소년들은 더 이상 전도가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으로 청소년 사역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각 교회 청소년 사역의 위기는 곧 청년 사역의 위기로 직결되고, 청년 사역의 위기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는 비참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청소년 사역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여러 가지 대안들과 방법들이 있겠지만, 각 지역교회들이 인근의 중고등학교를 품고 기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안팎에서 선교하는 사역들을 실행하는 일은 매우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지역교회들의 인근 중고등학교 선교가 사라지면 지역교회의 청소년 사역에는 소망이 없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로 찾아오던 시대는 지나갔다.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들을 계속해서 창조해야 한다. 사회적인 분위기, 정부의 종교활동 자제요청으로 인하여 공립학교 안에서 예배모임이나 기독교관련 모임을 갖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5년 전에 비해 지금은 훨씬 더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워 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이 막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과 뱀처럼 지혜로운 사역자들의 열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2007년 D중학교 예배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에도 주변의 반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미 많은 대형교회의 학원선교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하였을 때에 현재까지도 가능한 사역이 되었다. 오히려 그 사역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아 한국감리교회와 사역자들이 교회 인근의 공립중고등학교를 마음에 품고 구체적인 사역의 방법들을 준비하여 실행해 나아가길, 또한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청소년 사역의 부흥을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청년 대학생 전도를 위한 꿈이있는교회 이야기

꿈이있는교회 담임 하 정 완 목사

한국사회는 분명히 변화의 조짐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괄목할만한 변화는 노인층과 청년층의 확장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년이라 말할 수 있는 2-30대는 전체인구의 37.6%인 1270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을 교회에 바로 적용한다면 500명이 모이는 교회에는 청년들이 187명 정도가 모여야 하고,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376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야 하는 결론에 이르지만 실제 현실은 장년 500명이 모이면 30여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50여명의 청년들이 모이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인식을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이같은 상황에 들어선 것인가?

왜 청년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가?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시대, 포스트모던 시대와 관계가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post-scientific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오감으로 표현되는 시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적용되던 시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느낌, 즉 여섯 번째 감각에 의해 규정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Just Feel It!” 이 광고문구야말로 포스트모던 시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 문구일 것이다. 어려서부터 영상매체에 의해 길들여진 세대들에게 논리적 설명보다 그냥 느끼는 것이 더 자유로운 시대가 포스트모던 시대인 것이다.

이 같은 시대에 청년들이 갖게 되는 새로운 느낌에 대한 열망은 점, 팔자, 운명 그리고 신비적인 집단과 종교로 이어졌는데, 요즘 점쟁이들이 호황을 누리고 단이며 기, 도, 통일교 심지어는 신비로워 보이는 불교와 신비적 의식을 강조하는 천주교로 청년들이 몰리는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만큼 귀신,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시기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마이클 슬러터는 지금 시대를 “god rush” 시대라고 규정하였다.

사실 청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화된 교회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anti” 운동에는 “anti-GOD”이 아니라 “anti-church”운동이 주를 이룬다.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그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싫어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교회가 잇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세상문화 가운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들은 리차드 니버가 지적한 것처럼 “against culture” 입장을 늘 택한다.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문화를 터부시한다. 그로 인해 교회들은 언제부터인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게토(ghetto)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어있기에, 세상을 적대시하기에 나름대로 온전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목회자들과 기도원, 교회들의 어두운 면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당히 깊어지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은 일종의 장벽들(blocks)을 형성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문화를 적대시함으로 문화적인 차이와 세대차이 등 수많은 갭(gap)들을 존재하게 만들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시대정신들과 포스트모던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인류의 모습들은 청년들이 더 교회를 싫어하는 경향을 나타나게 했다. 리이스 앤더슨(Leith Anderson)은 그의 책 “Dying for Change”에서 이 같은 신인류의 특징에 대하여 몇 가지로 요약했는데 다음과 같다. 그들은 다양한 선택의 사회에 살고 있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자신에게 어느 것이 유익하고 재미있는지를 따지고 늦게 결정하는 모습을 지닌다. 또한 기존 질서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충성을 보이지도 않으며,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많이 배운 세대이기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양면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에 우리 교회들은 지금까지 무감각했었다. 조지 바나(George Barna)가 얘기한 것처럼 차가운 물이 가득 담겨진 솥 안에 개구리를 넣고 열을 가하였을 때 개구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솥 안에서 삶아져 죽는다는 예화와 그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뜨거워진 물에 담겼었다면 개구리는 분명히 뛰쳐나왔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교회들도 솥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불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 현실에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은 성육신, 곧 사람이 되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사람이 되신 것이다. 문화적 동일시(Cultural Identification)가 성육신 사역의 내용이다.

어느 날 부터인가 교회들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노방전도 역시 심하게 축소됐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만나는 접근 방법이 지나치게 노후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순히 전도지를 뿌리는 것으로는 미디어 시대의 화려한 문화를 접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오로지 대학 복음화만을 추구해 온 수많은 대학선교단체들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되는 것으로 그 가능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 역시 팔레스틴을 떠나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성육신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

므로 그는 주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 ‘문화적 동일시’를 사역에 적용하였다. 그것이 바울 전도사역의 성공 요인이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고전9:22)

얼리버드 예배의 위치

청년 대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꿈이있는교회가 시도해온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역의 핵심은 성육신 사역에 기초한 문화적 동일시의 적용이다.

첫 번째 준비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비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얼리버드 예배 역시 그런 적용의 한 예이다. 학교 앞의 카페를 빌려서 진행한 화요일 아침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들을 위한 예배이다. 예를 들어 꿈이있는 교회가 위치한 성신여대 근처의 카페(엔젤리너스 커피숍)를 빌려서 아침 8시부터 30분 동안 예배를 드렸다. 순서는 연주(5-7분)/ 영화묵상(편집된 영화묵상, 10분)/ 설교(영화로 던져진 주제 중심, 10분)로 이루어졌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이같은 시도는 숭실대, 한북대, 한남대 등 몇 개의 대학에서 시도되었다.

세상에서 직접 만난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원칙은 꿈이있는교회를 강조하거나 교회로 오라는 직접 혹은 간접 전도를 전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상당수의 성신여대생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진 않았다. 하지만 교회의 이미지 개선은 확실히 이루어졌다. 알음알음 찾아오는 성신여대 생의 증가가 그 결과이다.

같은 관점에서 소개할 것이 ‘복가도심’(복음을 가지고 도심의 심장으로) 사역이다. 이는 주로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이나 청주 철당간 광장 혹은 해운대 CGV 광장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순서는 ‘복가도심’ 퍼포먼스 팀의 거리 공연(15분)을 통하여 거부감을 줄인 후 전도팀들이 직접적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접촉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사역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탁월한 공연인데, 충분히 세상이 설득될만해야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문화적인 탁월함이 필요하다. 이미 문화는 청년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코드로 변한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문화를 즐기고 누리려는 세대를 설득하려면 탁월한 문화행위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준비는 논리적인 설득력과 상식적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의 장년 세대의 학력과는 달리 대학이 기본인 많이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거나 봉사를 강요할 때 거절하기도 하며, 교회의 비민주적인 목회형태나 지나친 목회자 중심의 스타일에 대하여 자기의 소리들을 내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어야 하며, 논리적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바울이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말이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들어간 모습 그대로 교회로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삶이 예배’여야 하는 것이다. 비신자 청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말이다. 그런 점에서 꿈이있는교회의 ‘구도자예배’(열린예배)는 매우 중요하다. 영화설교, 콘서트, 드라마가 있는 예배가 그 청년들을 설득하고 수용적이 되게 한 것이다.

꿈이있는교회의 시도들

2명을 데리고 종로 한복판에서 개척한 꿈이있는교회는 지금 주일예배 참석인원이 4-500, 재적교인 6-700 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청년들이 전체 교인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교회이다. 장소의 협소함이 제약이긴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새로운 시도로 세상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꿈이있는교회의 부흥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바꾸고, 세상 청년들을 설득하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도 문화적인 접근은 계속 시도되고 있다. 단편 영화 ‘버스’와 같은 영화 제작, 대학로 연극공연, 교회 근처 몇 개의 카페를 이용한 전도중심의 공연 ‘카페 스토리’, 학원복음화협의회와 연합한 전국 대학투어 ‘EF 전도집회’ 등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3월 30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The Wall’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퍼포먼스, 사진전, 다큐멘터리 제작, 연극공연등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사역이다.

어떻게 세상을 만나고 설득할 것인가? 사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성육신 사역’을 이해하고 세상을 만나려는 시도를 할 때, 각 교회에 맞는 사역을 주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치려 한다. ‘먼저 세상으로 들어가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림교회와 경화여자중학교 이야기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우 종 익 목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위의 성경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연합’이 있는데 바로 대림교회와 경화여중입니다.

대림교회는 1971년 4월에 설립되고 현재는 대방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배 중심의 교회입니다. 지역과 세계를 향한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기독교 문화를 심는 교회입니다.

특히 교육과 장학 사업으로 미래의 젊은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대림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꿈을 꾸며 향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므로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의 귀중한 일꾼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독교 인재를 육성하는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경화여중은 1976년 경기도 광주에 설립한 학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 나눔과 섬김 그리고 배려를 실천하고,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며 진로를 개척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실력 있는 창의 인으로 육성하고, 세계시민의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글로벌 국제 인으로 양성하며,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목표로 이루어 가는 명품 학교입니다.

감리교 학원선교회가 1994년 결성된 후, 첫 사업이 감리교회와 감리교계통학교 간의 자매결연 사업이었는데 이때 대림교회와 경화여중이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학교에서는 대림교회 임준택 목사님을 초대하여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경화인들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자매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은 물론 장로님, 권사님들로 시간을 내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십니다. 때로는 바쁜 사업도 뒤로 하시고 학교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잔잔한 감동을 전합니다.

대림교회에서는 자매결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학원 선교를 위한 선교비와 장학금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 선교비는 학교 교비로 충당할 수 없는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기획 및 유명 CCM 가수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등 활발한 학원선교를 감당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달받은 장

학금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년 학교에 찾아오셔서 장학금과 선교비를 주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학원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매교회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교목실에서는 열심히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9월이 되면 신앙부흥회 및 세례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식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어서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예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중학교 학생들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과 그 뒤에서 세례보좌를 돕는 선생님들의 섬김을 보면서 경화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경화중 전교생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매교회의 관심과 도움입니다.

이러한 자매교회의 활동에 보답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도 자매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 2012년에는 30여 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10월 28일 주일에 대림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자매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그동안 학원 선교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의 찬양은 학교 학생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준비된 특송을 하면서 학교와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서로 체험합니다. 예배 후에 자매교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맛있는 음식은 자매교회를 방문하는 또 다른 기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개 교회 중심의 성장이 아닌 남을 위한 관심, 특히 다음세대를 위한 학원선교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다양한 선교적 사명에 좋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나눔과 사랑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매교회가 있음으로 학원 선교에 탄력을 붙어 넣을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독교의 좋은 이미지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학생들에게 신앙의 삶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 모두에게 좋은 점을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매결연의 관계가 더 많은 학교와 교회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미래 – 기독교학교

‘종자연’ 문제를 중심으로

명지고 교목 김 종 화 목사

들어가는 말

지난 2012년 1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종교차별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종교에 대한 개선과 차별 시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147개의 학교로 설문을 보냈다. 설문에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육기본권’을 강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5-1. 귀하가 다니는 학교 안에는 불교,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 포함), 유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천도교, 대종교 등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종교에 관련되는 종교적 상징물이 함께 있습니까?(예를 들어, 부처님상과 예수상이 학교 안에 있거나,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불교를 나타내는 근가 함께 있다거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설문에 따르면 기독교사에서 ‘종교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기독교 유물관이나 기도실에 십자가와 불상을 함께 세워야된다’는 사고 발상자체가 흥미롭다. 종립학교 관계자들을 의아하게 만들게 함과 동시에 공분을 사게 한다. 여기에는 지난 5월 불교단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사이에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맺은 데에서 기인한다. 인권위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기관 ‘종자연’의 활동을 짐작케하는 단적인 증거이다. 불교단체가 기독교학교를 사찰하면서 생기는 문제의 시작이다. 그렇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종자연의 인권위 활동은 마치 종북단체에게 북한의 인권을 조사하게 만든 것과 같다. 종교편향을 일으키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법치국가에서 시행령으로 상위법인 헌법(제20조 제1항)과 법률(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동법 제25조)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장관고시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종자연의 법을 초월한 활동에 대하여 우려의 소리가 높다.

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운데 말

종자원의 실체와 사건 개요

지난 2012년 6월 11일 월요일 국민일보에 “종자연, 대광고 사태 개입 이후 학원선교 크게 위축”, “종교교육 막아 기독교 교회를 말리려고 해”라는 제목의 기사(백상현 기자)의 중점 보도 후 국민일보 미션란에 종자연 실체를 밝히기 위한 기사가 연이어 실렸다. 여기에는 ‘불교계의 지원을 받는 종자연, 막강한 힘으로 교육청 압박... 인권위 용역 꼭 철회시켜야’라는 부제와 함께 ‘종자연이 문제 제기한 것과 교육청 장학지도 계획 일치’에 대한 각종 우려가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회가 불교단체의 공격을 적극 막아내고 사회적으로 평준화 교육 시스템의 맹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김용관 교목(오산고), 원광호 교목(대성고), 우수호 교목(대광고), 김종화 교목(명지고)의 일문일답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당시 국민일보 취재 중 대광고 사건의 학원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강의석 사태로 학교측은 법무법인 로고스 단 하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반면 강의석씨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만 무려 45명이었고 법무법인 18개가 참여하였다. 거기에는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에 대하여 종교 교육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들이 동원 되었으며, 이에 불교계 ‘종자연’이라는 단체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첨부 자료 참조).

기독교학교의 역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부활절 아침, ‘하나님은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시라’(요 3:16)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빛을 전할 선교사들은 사명을 가지고 조선에 발을 내딛는다. 과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학원과 병원을 설립하였고, 교육과 치유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었다. 여기에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 소외된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노예와 같은 식민지 생활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가르치며 지키기 위해 몸부림 쳤던 삶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부뚜막에 혼자 밥을 먹던 여인네들이 이화학당을 통하여 시대정신의 주역이 된다. 십대소녀가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었다. 평화적 시위에 어린 유관순이 7년형을 선고 받는다. 공주재판소 법정에서 일본 만행을 규탄하다가 법정 모독죄까지 얻게 된 이유이다. 결국 영양실조와 모진 고문에 순국하게 된다.

1900년 스물 네 살의 나이에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현 존스홉킨스대학교)을 졸업한 한국 최초의 여의사 김점동(박에스더-에스더는 세례명)은 보구여관을 시작으로 1903년 평양 광혜여원(廣惠女院)으로 옮겨 10개월간 3천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다. 맹아학교와 간호학교 설립, 계몽활동 등 고된 생활로 얻은 폐결핵으로 1910년 세상을 떠난다.

도산 안창호는 언더우드 학당에서 수학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을 배운다. 18세부터 독립협회에 참여하여 애국계몽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다. 대성학교, 흥사단, 공

립협회, 신민회,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독립당 등을 이끈다. 상해 일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이송 두 차례 옥고를 겪고 병을 얻어 독립을 보지 못하고 만 60세를 일기로 삶을 마친다.

기독교학교의 영향

1885년부터 한반도에 많은 사립 교육 기관에 세워진다. 서양 선교사 혹은 그들로부터 직접 영향받은 한국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육 기관은 진취적 민족주의와 영혼을 꿰뚫는 기독교 신앙이 한국 민족의 억눌린 민족혼을 일깨워 근대적 민족 자주 운동과 사상을 형성한다. 이에 이승훈, 조만식, 서재필, 김규식, 김마리아, 김구 등과 같은 빼어난 민족 지도자들이 나타난다. 서국의 신학문과 민족 정신을 결합하는 민족 독립 운동과 교육 운동을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서 끊임없이 추진하게 된다. 뛰어난 사상가 유영모와 함석헌, 소설가 이광수, 김억, 한스러운 민족 정서를 노래한 시인 김소월과 나도향, 한글 학자 주시경, 광복군 총사령과 지청천 등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게 된다.

그 피의 맺가는 교육의 선교적 우위(특정종교건학이념 사립학교 기독교 84.7%(개신교 68.6%, 가톨릭 16.1%), 불교 5.1%, 통일교 1.3%, 안식교 3.4%)로 나타난다.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땅, 변치않는 그리스도 사랑의 빛을 비추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교육한다. 그 교육의 중심에는 '설립 정신' 이 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은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신의 계승 발전이다. 공동체정신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사고가 팽배해진 이 시대에 반드시 요청되는 사상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기독교사립학교의 역사와 전통은 묻어버리고, 아직도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기독교학교 죽이기' 를 위한 치밀한 법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학교에 대한 탄압

'종자연' 은 2005년 참여불교재가연대의 발의로 설립된 단체이다. 기독교학교 내 종교교육과 기독교에 관해서 200여 차례 논평과 세미나 기자회견 그리고 캠페인을 벌였다. 반면,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사업이나 사찰통행료 징수 문제 등에 대해선 일체 함구하는 단체(국민일보 2012.6.12.)이다. 넘을 수 없는 기독교학교와 타 종단 학교와의 종교편차를 무력화 시키려하고 있다. 종자연의 공동대표나 이사, 전문위원 등 핵심세력이 불교 인사들로 구성되어 그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문병길, '황당한 '종자연' 의 종교편향과 기독교대응').

지난 2008년 시청 앞 광장의 범불교도대회 쟁점으로 '종교자유' 라는 것을 불교가 특화하여 정부를 압박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종교편향재발방지' 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했다. 종자연과 불교는 이원체제로 조직되어 있다. 불교 산하에는 '종교평화위원회' 가 있고 평신도 단체와도 같은 '종자연' 이 있다. 이 두 단체를 중심으로 기독교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을 벌이고 있다(뉴스파워, 2012.8.30.).

현 평준화 정책하의 종교과목 거부 학생문제는 평준화정책 강행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교육당국이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종교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기독교학교에만 전가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16일, 종립학교 내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과제를 불교단체인 종자연에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종자연은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모든 기독교학교를 사찰하는 등 기독교학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수업대신 할렐루야, 학교는 종교 감옥’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8월 9일자 한겨레 신문의 과장보도와 악의에 찬 기사가 보도되었다. 국민일보의 반박 보도가 이어졌지만, 종자원은 사실관계 확인없이 바로 그 다음날인 8월 10일 교육감독기관인 양, 해당학교장에게 학내 종교편향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8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공문을 발송하였다. 불교 단체이며 민간연구기관인 종자원은 제도권에 있는 일선 학교의 관리감독 기관도 아니고, 학교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상위기관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학교에 명령하듯 ‘시정하라’ ‘결과를 회신하라’고 압박하였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종자연, 기독교학교 감찰기관인가’라는 논평(크리스천투데이 2012.8.16.)을 내어 그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 역시 국가인권위나 불교 단체인 종자연과 호흡을 맞춰 그 심각성이 더하여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기독교학교에, 그리고 자주성이 보장되는 자율고등학교에까지 종자연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당국의 정상화 요구를 외면하고 기독교학교는 물론 자율고등학교에까지 간섭하여 지난 8월 10일 전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대체과목 개설을 강요하고, 8월 27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불법적이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 성명서 중).

교계의 대처

대광고 사태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기독교사학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7개의 교단장, 기독교 주요연합기관, 학원이사장 및 전국 300여개의 기독교중고등학교장 등의 관계자들은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난 2012년 8월 30일에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 및 성명서 발표를 하였다. 이어 11월 16일에는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종자원의 ‘학내 종교차별 실태조사’ 강행 결정에 대해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고, 기독교 학교들에 대해 종자원의 연구조사를 거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결의했다(크리스천투데이, 2012. 11.16).

인권위를 비롯한 종자연과 교육청이 진정한 인권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학교 탄압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기독교학교의 설립 정신이야말로 학생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권을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소외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오셨고, 주 안에서 그들이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셨다. 진정한 인권을 원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종교교육을 원치 않는 학생은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학교 역시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설립 정신을 이어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들은 지원해야 한다.

나가는 말

우리나라는 19,000학교와 약 1200만 학생들이 있으며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700만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받고 졸업하고 있다. 더구나 학원은 매년 선교할 대상인 신입생들이 모여들고 있는 복음 선교의 황금어장이기도 하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2009년 12월 30일 현재)현황에 따르면 회원학교가 400개로 유치원 13개(학생 1,749명), 초등학교 13개(8,044명), 중학교 128개(81,722명), 고등학교 177개(182,841명), 대학 28개 및 대학교 41개(379,171명)에 이르고 있다. 653,527명이 기독교교육을 받고 있고, 끊임없이 졸업과 함께 새로운 입학생들을 받는다. 기독교학교 설립정신구현 속에는 한국교회의 ‘모판’ 혹은 ‘어장’ 과도 같은 역할

을 할 수 있다. 엄청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비를 앞세운 불교단체 종자원이지만, 80%가 넘는 기독교학교에서 기독 청년들의 진출은 향후 종단의 생존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들이 경계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 위기의식은 각종 언론과 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압력을 행사하며, 기독교를 폄하 왜곡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기사에 따르면(국민일보 2012.7.2.) 한국교회언론회가 2010년 한해 10대 중앙일간지 중 한겨레 신문을 분석해보았다. 기독교 비판기사 비율은 14%인 반면, 불교 비판기사는 4.7%에 불과했다. 한기총 성명서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칭찬 기사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찾기 어려운 반면, 불교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 기사로 일관하는 등 종교 편향적 보도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에 제보한 학생조차 ‘부흥회가 좋았고, 감동적이었다’ 라고 소감문을 썼지만 기사는 오히려 ‘수업대신 할렐루야, 학교는 종교감옥’ 이라고 보도되었다. 심지어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유엔안보리에 의문을 제기했던 ‘참여연대’ 에서는 제보 후 자퇴한 학생에게 공익제보 ‘의인상’ 까지 주며 격려하였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서대문지역 고교선택제에서 4: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는 등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으며, 가장 가고 싶은 인문계고등학교 1위로 선정되는 대표적인 기독교학교이다. 편향적 보도에 해당학교 학생들은 해당 신문에 항의성 댓글을 달았고,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문제를 지적하는 논평을 냈다(크리스천투데이 2012.8.16.).

기독교학교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한국기독교의 미래이며 큰 자산이다. 그 근간을 흔드는 일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순교의 피로 세워진 설립 정신을 지켜야 한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이하며 기독교학교를 향한 지역교회의 보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기대한다.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성실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학원선교’ 라는 모판을 거쳐 교회와 사회에 알곡으로 자라야 한다. 황금어장을 폐쇄하도록 침묵해서는 안된다. 기독교가 과거 역사 속에서 놀라운 행보를 보였듯이, ‘학원선교’ 가 미래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기도한다. 신(新)사도행전은 계속될 것이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얹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Henry G. Appenzeller)

첨부 자료¹⁾

종자원의 구체적 실상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원) 대한불교조계종의 재가자(평신도) 중 최고 지도자로 손꼽히는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가 주도했다. 종자원을 이끌고 있는 박광서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사와 한국불교재가회의 운영위원, 조계종 화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그들은 범종교 시민단체라고 주장하지

1)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실체를 밝힌다’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제공) 등을 주로 참조하였음.

만 사실은 불교단체이다. 구체적으로 종자원은 1999년 설립된 참여불교 재가연대 산하 기관이다. 2005년부터 미션스쿨 내 종교교육은 물론 사랑의 교회 건축, 교회 투표소 설치, 기도 세레모니, 고려은단 광고에 이르기까지 200여 차례 논평과 세미나 기자회견 캠페인 등으로 한국교회를 종교편향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반면 종자원은 매년 185억원씩 82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템플스테이나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연등회, KTX 통도사역 병기 논란, 사찰통행료 징수 문제, 봉은사 불법 건축물 등의 이슈에 대해선 일절 함구하였다(국민일보 2012.5.30., 2012.6.13., 2012.9.6.사설).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종교편향 주장 내역(국민일보 2012.5.30.)

연도	기독교 관련	불교 및 기타 종교 관련
2005년	문봉주 전 뉴욕총영사의 공개 성경강좌 국가대표선수 기도세리모니 공립학교 내 종교활동 금지 주장 대광고 강의석씨 사태 개입	없음
2006년	미션스쿨 신앙교육 금지 주장 송실대 채플거부 사태 개입 고려은단 옥외광고판 문제제기	없음
2007년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강화 교회 내 투표소 설치 전면금지 헌법소원	없음
2008년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헌법소원, 국가인권위 진정 공정택 전 교육감 종교활동 헌법소원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 주장	없음
2009년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종교차별 문제제기 서울 대치동 '칼빈길' 문제제기 교회 투표소 설치 금지 주장	없음
2010년	청와대 예배, 안양 백영고 예배 ²⁾ 문제제기 지자체 시립합창단 활동 문제제기 기독교 이슬람채권법 반대에 반대 성명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의혹 제기 공직자 조찬기도회 참여금지 주장	없음
2011년	국방부 찬송가연주 문제제기 사랑의 교회 10만 감사청구 서명운동 전개	없음
2012년	국가조찬기도회 중단 촉구	없음

2) 매주 금요일 근처 교회(새중앙교회) 1500명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다. 학교로 옮겨 지하 식당에서 700명이 모여 첫예배를 드렸지만 현재는 300명 정도로 점차 수업(자습)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종자연의 이런 행보에 대해 불교 쪽의 반응은 우호적이다. 화계사에서는 “종단과 사찰에서 앞장서기 어려운 일을 맡아주니 감사하다”며 종자연에 금일봉을 주었고, 천태종도 “종교자유 신장을 위해 용맹정진해 달라”며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종자연은 조계종 등 종단과 사찰로부터 수천만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난 7년간 대광고 소송과 기독교 종교편향 연구를 수행했다.

2008년 8월 4일, 종자연 박광서 공동대표는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범불교비상대표자회의에서 “종교편향 관련 예산을 조계종 총무원에서 매년 (예산의) 1%씩 10년간 지원해줘도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교회 공격수라 불리는 종자연은 ‘기독교 종교편향 왜곡’ 위해 조계종서 9500만원을 수수하였다(국민일보 2012.6.25.). 기자회견 세미나 여론조사 민사소송 입법소원 헌법소원심판청구 진정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종교편향 집단으로 몰았다.

■ 종자연 사태 일지(국민일보 2012.6.25.)

일 시	내 용
5월 16일	종자연, 인권위로부터 ‘학내 종교차별 실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주
26일	종자연의 인권위 용역 수주 첫 문제제기(국민일보)
30일	종자연이 화계사와 천태종으로부터 후원 받은 사실 보도(국민일보)
31일	종자연의 대광고 사태 적극 개입 사실 보도(국민일보)
6월 1일	종자연 관계자 “불교단체 아니다” 주장 종자연 불교 포교단체 건물 입주사실 보도(국민일보)
2일	종자연이 사랑의 교회 시민감사청구에 개입한 사실 보도(국민일보)
13일	종자연이 불교단체라는 명백한 증거 보도(국민일보) 예장 합동, 종자연 규탄 성명서 발표
14일	박광서 종자연 공동대표, “종자연은 불교단체 아니다” 반박
18일	한기총, 종자연·인권위 규탄 성명서 발표 인권위, 국민일보 종자연 연구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거부 ‘종자연의 기독교 공격 전략 시리즈’ 시작(국민일보)
19일	한기총, 종자연 특별위원회 구성 결정
22일	길희성 종자연 공동대표, “종자연은 불교단체” 시인 종자연 내 기독교계 인사 활동은 허구 사실 보도(국민일보)

불교계의 이중잣대

불교계에서는 전통종교문화 보존 명목으로 국고 190억원이 배정되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로 서있다. 서울 견지동 조계사 옆 자연채광을 최대한 살린 지하 4층, 지상 4층의 현대식 건물이다. 대지면적 4545㎡

(1375평)에 연건평만 1만6809㎡(5085평)의 규모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 건물이 전국 25개 교구본사 및 2000여 사찰을 총괄하는 조계종의 총본산(본부)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하 1층 불교 중앙박물관 외에 1층에서 4층까지 조계종 총무원장 집무실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 호계원 등의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들어서 있다. 기념관 안에 있는 134석 규모의 국제회의장과 275석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이 있는데 조계종 신도와 불교단체에 우선 대관하고 있다. 대관 조건은 종단과 불교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기에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은 사실상 어렵다. 개최된 행사를 보더라도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포교정책연찬회, 호국불교세미나, 사찰운영위원회 등 조계종 관련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불교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만든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 (문화부, 2009년) 보고서에는 “종교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입법과 지원은 해당 종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정교분리에 위반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불교단체 종자연도 2011년 11월 “특정종교인들만 이용하는 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논평을 낸 적이 있다. 그런데도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국고 지원을 받은 기념관에서 “기독교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권력과 유착했으며 종교편향 및 차별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수십 차례 모임을 갖고 대책을 모색했다(국민일보 2012.7.4.). 한국교회언론회 보도자료(2012.12.7.)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종교별로 지원한 것을 살펴보면, 총 6,301억원 가운데 불교계가 96%, 천주교가 3.1%, 그리고 기독교계는 0.9%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선교의 피해

2010년 4월 대광고 사건 대법원 판결시 변호사 45명과 18개의 법무법인이 ‘미션스쿨에서 종교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강의석씨를 변론했다. 강씨가 원고였지만 실제 소송을 진행한 곳은 불교단체인 종자연이다. 종자연 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대광고 사건 때 강의석씨의 소송대리인이었다. 당시 45명의 변호사가 강씨를 변론했는데 최소 10명이 불교계 변호사가 투입되었다. 시민단체와 종자연, 불교계가 합작하여 공격한 사건이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그들은 승소하였다. 2011년 대광고는 자립형 사립교로 전환하여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지만 교육청의 지침은 계속되고 있다. 대광학원 이사장 이철신 목사(대광초·중·고등학교, 영락중·고등학교, 보성여자중·여자고등학교 법인 이사장)는 교육청은 간섭정도가 아닌 강제로 협박하는 수준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국민일보 2012.6.22.).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지침은 결국 신앙의 자유, 예배드리는 자유, 믿는 복음을 전할 자유, 선교할 자유를 막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도 가고 순교도 했다. 이건 적당히 타협할 일이 아니다. 우리 선배들은 복음을 목숨 걸고 지켰다. 이제는 제발 지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사장에서 해임시켜줬으면 좋겠다. 운동을 일으키려면 누군가 한명은 희생돼야 한다. 그래야 전체가 각성한다. 하지만 정부 쪽에선 그렇게 안한다. 교육청은 계속 겁만 준다.”

교육청은 평준화로 인하여 생긴 문제를 학교에 모두 전가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이철신 목사는 평준화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재단은 학교로부터 지원받은 적 없고, 오히려 영락교회는 매년 수억원씩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정부를 대신해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면서 사립학교를 대신 세웠고 교육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은 최소한 존중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하여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문제이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 학교의 설립 목적대로 예배와 성경공부에 찬성하는 학생이 들어온다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학생이 없을 것이다. 정말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신앙교육을 하려면 평준화를 철폐해야 한다.”

나아가 교단과 교계의 침묵과 학원선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당부 한다.

“예장 합동이 종자연 관련 성명서를 내었다. 사실 예장 합동엔 미션스쿨이 별로 없다. 학교는 예장 통합과 기감이 많은데 목소리가 전혀 없다. 높은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의 의식이 별로 없다는 말이다. 집에 강도가 들어와 설치고 있다. 한국교회는 마치 강도가 사랑방을 뒤지고 있는데 ‘안방에만 안 들어오면 상관없다’고 안주하는 집주인과 같다. 미션스쿨은 일종의 사랑방과 같다. 기독교학교를 공격하는 세력이 점점 침투해 들어오면 교회라는 안방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기독교학교는 운영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교회가 큰 어장을 만들어야 한다. 어장이 풍성해져야 한다. 미션스쿨엔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 그런다고 졸업생이 모두 우리교회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교회를 섬긴다. 복음화율이 낮은 제주도나 부산·경남을 복음화하고 싶은가. 그럼 기독교학교를 세우면 된다. 졸업생들이 언젠가 지역사회의 리더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에 기독교인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는가. 그들은 대부분 학원선교, 대학생 선교³⁾의 결과물이다.”

3) ‘연세대 정관변경 결정 과정, 불교신자 이사’ 등이 쟁점되고 있다. 선교사들과 교단에 의해 세워진 연세대는 정관상 기독교인사만 이사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측 안상운 변호사는 박삼구 이사(금호아시아나 회장)가 불교신자라고 고백한 언론매체 보도를 인용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기독교연합신문(아이굿뉴스) 2012.8.16.) 결국 법원은 기독교대책위 패소 판결을 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7일 연세대사유화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이사회 정관 변경 무효에 관한 소송을 기각하고, 방우영 이사장 연임 결의 취소에 관한 소는 각하했다(뉴스미션 2013.2.8.).

감리교계통학교와 자매교회 현황

번호	학교	이사장	교장	교목	자매교회	담임목사
1	경화여자중학교	김득연	최진복	우종억	대림교회	임준택목사
2	경화여자고등학교		최진순	김정석 이현아	신평교회	김연규목사
3	경화여자비즈니스고등학교		서영옥	강태욱	만나교회	김병삼목사
4	광성중학교	김동선	최준수	허광열	성광교회	방원철목사
5	광성고등학교		최준수	김신원	은제교회	김응용목사
6	대전대신중학교	이강년	전용만	배미영	천성교회	조성근목사
7	대전대신고등학교		한상덕	서정식 장연채		
8	덕신고등학교	강효성	고승의	김세환 김연희	강화중앙교회	장영철목사
9	명지고등학교	송 자	황남택	김종화	모래내교회	윤병조목사
10	매향중학교	김호섭	고정진	김학석	영화교회	김 철목사
11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박정화	강영옥	수원종로교회	안희선목사
12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박종세	방원자	박성환 김남수	광림교회	김정석목사
13	서울문영여자중학교		한정훈	박성환 이경진		
14	배재중학교	황방남	김문환	신영경	수표교교회	김용성목사
15	배재고등학교		김용복	장운석 박성중 안향미	정동제일교회	송기성목사
16	배화여자중학교		정하봉	김주남	김은철	종교교회
17	배화여자고등학교		이경표	이기성	자교교회	이승호목사
18	삼일중학교	서 철	백일현	최리균	안양교회	임용택목사
19	삼일상업고등학교		민찬홍	김경진	도봉교회	이광호목사
20	삼일공업고등학교		소진억	김학규	수원성교회	최승균목사
21	서울관광고등학교	정의선	조금석	김의령	중앙교회	정의선목사
22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박종세	한상국	박성환	광림교회	김정석목사
23	서울예술고등학교	이대봉	서영님	임영호 김은주	세검정교회	황문찬목사
24	성신여자중학교	김순옥	김옥진	최종혁	돈암동교회	김동걸목사
25	성신여자고등학교		최경호		돈암교회	현인호목사

번호	학교	이사장	교장	교목	자매교회	담임목사
26	송도고등학교	이수영	권영섭	조희영	부천성은교회	허원배목사
27	영란여자중학교	장명수	김애희	이평일	예수마을교회	성낙범목사
28	공주영명중학교	표용은	오대현	유혜종	공주중앙교회	황충호목사
29	공주영명고등학교		오대현		공주제일교회	윤애근목사
30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김홍규	김정연	이광선	내리교회	김홍규목사
				김현정		
31	예원학교	이대봉	이종기	서세훈	아현중앙교회	이선균목사
32	온양한울중학교	김진우	김수홍	김향아	대명교회	김영호목사
33	온양한울고등학교		박우승		한마음교회	최형근목사
34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김기종	강사경	김성광	이천중앙교회	김종필목사
				문은실		
35	이천양정여자중학교		김용대	하은용		
36	이화미디어고등학교	장명수	최진자	이대길	금호제일교회	채교열목사
				차은혜		
37	이화여자고등학교	이기우	강순자	국화용	정동제일교회	송기성목사
				이영복		
38	이화외국어고등학교	이기우	한현수	김형석	은평교회	김영현감독
39	이화여대사대부속중학교	윤후정	성효현	이현숙	창천교회	서호석목사
40	이화여대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유정문	조종철	대신교회	홍원영목사
41	인덕공업고등학교	김석운	이석규	최철기	성천교회	김기택감독
42	재현중학교	김진우	임성만	김의태	서울제일교회	심원보목사
43	천성중학교	한주호	최정환	김봉환	하늘중앙교회	유영완목사
44	천안상업고등학교		박준구	김창수	하늘샘교회	이성수목사
45	청신여자중학교	조명호	김기명	강석구	청양교회	김종태목사
46	태광중학교	김기영	황지연	최한영	기쁜교회	손웅석목사
47	태광고등학교		최총일			
48	파주중학교	최애도	이승정	김중배	삼양교회	정진권목사
49	세경고등학교		오순석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
50	팔봉중학교	정계훈	조영선	박정수	서산제일교회	이구일목사
51	팔렬중·고등학교	김고광	신학봉		월곡교회	김종훈감독
52	호수둔여자중학교	조명호	임광순	김형일	논산제일교회	남문희목사
53	호수둔여자고등학교		신현충	주금섭	하늘문교회	이기복감독

감리교계통대학 현황

학교명	총학장	교목	전화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종천		02)361-9114
목원대학교	김원배	안승병 이광주 손삼권 김청봉	042)829-7114
협성대학교	장동일	유성준 손성수 이광선	031)299-0900
연세대학교	정갑영	한인철 조재국	02)2123-2114
이화여자대학교	김선옥	손운산	02)3277-2114
안산대학교	김주성	노현수 김재중 김진희 김성희	031)400-6900
배재대학교	김영호	이성덕 손의성 안신	042)520-5114
남서울대학교	공정자	이사야	041)580-2000
배화여자대학교	김숙자	전병식 김언영	02)399-0700
인덕대학교	이우권	구완서 장형철	02)950-7000

학원선교회 조직

지도위원 : 김기택 감독	황방남 목사
중경회장 : 김진호 감독	신경하 감독
회장 : 김종훈 목사	
부회장 : 심원보 목사	남문희 목사
총무 : 김영호 목사	
협동총무 : 정현범 목사	
서기 : 최형근 목사	
회계 : 박춘희 목사	
감사 : 강홍복 목사	윤병조 목사
간사 : 김종남 목사	

교목회 조직

회장 : 우종억 목사(중고등학교) / 안승병 목사(대학교)
총무 : 박성환 목사(중고등학교) / 전병식 목사(대학교)
회계 : 김성광 목사(중고등학교) / 유정은 목사(대학교)
서기 : 이기성 목사(중고등학교) / 장형철 목사(대학교)

기독교학교 교육헌장

1.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에게 응답할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임을 믿는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인간의 모습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대업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는다.
3.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우연이나 숙명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터전임을 믿으며 우리는 그의 목적과 완성의 날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믿는다.
4.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로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성이 개조될 수 있음을 믿는다.
5.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악과 부정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하고 협조적인 새 질서를 수립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이 기독교 학교가 가지는 독특하고 신성한 사명임을 믿는다.

(1970년 9월 25일 제정)